

면접 담화에서의 대답 방법에 대한 연구*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주경희**

<차 례>

- I. 문제제기
- II. 스토리텔링의 국어교육적 의의
- III. 면접에서의 좋은 대답의 조건
- IV. 면접에서 스토리텔링 구성 방법
- V. 맺음말

I. 문제제기

입학이나 취업 등에 필요한 면접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 구성은 표현과 이해에 중점을 둔 국어교육의 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및 화법 교과서 등에서는 면접의 준비 절차, 면접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짧은 화법 교육사’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전은주, 2008, 한현숙·전은주, 2008).

그런데 화용론이나 담화분석론 등에서는 면접 담화(혹은 그 상위 개념인 면담 interview)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행위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들의 의미 생성 원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 이 논문은 2010학년 세종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세종대학교 교수(chukh@sejong.ac.kr)

업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어교육학에서 면접에서의 표현과 이해 즉 언어 사용 양상에 주목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체계로서의 언어관’ 내지는 ‘문자 언어적 기제’(박인기, 2010)¹⁾가 지배하는 학문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어교육에서 학생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면접 화법을 도입해야 한다면 면접 과정 중 ‘면접하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²⁾ 그리고 이들의 언어 사용 양상이 교육 내용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면접하기’를 구성하는 ‘질문하기’와 ‘대답하기’라는 언어 행위는 맥락에서 서로 부호화되고 의미가 생성된다는 특성이 있어 일상에서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국어교육학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³⁾

특히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대답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미 노은화(2007)에서 면접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한 대답 방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⁴⁾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어교육학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국어학에서 대답에 대한 연구로는 이필영(1999), 강우원(2000), 이은영(2003) 등이 있다.⁵⁾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답 표현이나 대답말 등 형태에

1) 박인기(2010), “국어교육과 매체언어문화”, 『국어교육학연구』 제37집, 국어교육학회, pp.137~158.

2) 면접 과정은 설계하기, 면접하기, 기록하기, 평가하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3) ‘텍스트’라는 용어가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므로 적절할 것 같다. 그러나 ‘담화’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서 이 논문에서는 ‘면접 텍스트’ 대신 ‘면접 담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면접은 자기소개, 자기소개서 쓰기, 대답, 질문 내용에 대한 PPT 작성, 토론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특정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면접에서의 대답 행위라는 것이 면 대 면 상황에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이 논문에서의 대답이라는 개념도 보다 폭 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5) 이필영(1999), “국어의 응답 표현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제6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71~105. 강우원(2000), “궁정 대답말의 화용적 특성 비교 연구”, 『우리말연구』 제10집, 우리말학회, pp.149~167. 이은영(2003), “직접적인 대답과 간접적인 대답의 기능”, 『한국어학』 제20집, 한국어학회, pp.175~190.

관심을 두고 있어 특정 상황에서 대답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취업 면접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국어국문학의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 고전문학에서는 원소스 멀티유즈(OSMU, one source multi use)로써 고전 문학이 갖는 현대적 가치 탐구를 하고 있다. 현대문학에서는 현대 문학 작품이 다양한 매체에서 변용되는 방법이나 과정을 스토리텔링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맥락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 글쓰기나 대화 등에서는 설득의 기법으로 이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논의는 스토리텔링이 일정한 구조가 있으며, 맥락을 활용하며, 담화의 형태를 갖추고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특성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 결과들은 모두 면접의 대답에 응용할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스토리텔링에 관한 여러 논의에서는 동일한 내용이라도 매체나 사용 상황에 따라 이야기의 구조와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 결과는 면접 상황에 맞게 면접자 개인 경험을 재구조화하는 방법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 내용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스토리텔링의 국어교육적 의의, 면접에서의 좋은 대답의 조건에 비추어 본 스토리텔링의 구성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면접 담화에서 효과적인 대답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 실제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면접 화법의 활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II. 스토리텔링의 국어교육적 의의

면접 담화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대답 방법에 대한 국어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것이 시대의 유행을 쫓는

기계적인 기법 제시에 그칠 수도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문화와 함께 도입되면서 21세기 문화 양상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김광옥, 2008 : 249). 이에 ‘현시대의 패러다임’(류훈, 2010)이라고도 규정하기도 한다.⁶⁾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매체와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면서 중요한 의미 생성 기제로 인정받고 있다(김재춘·배지현, 2009 : 62).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를 표현하는 기법이나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⁷⁾ 이는 일반적으로 ‘인물·사건·배경을 갖추어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기술해 가는, 즉 사건의 나열로 짜여진 스토리를 표현하는 말하기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조정래, 2010, 최예정·김성룡, 2005).

그런데 사전적 의미의 ‘storytelling’은 이야기를 쓰거나 말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즉 매체와 방식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정의에서부터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스토리와 매체가 결합된 이야기,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인 이야기하기, 이들이 행위할 공간과 시간인 이야기판으로 제시할 수 있다(김광옥, 2008 : 269).

이러한 개념과 관련 요소들을 고려할 때 스토리텔링은 ‘이야기’(story)를 ‘화자와 청자가 상호작용’(telling)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이라는 말 속에는 스토리텔링이 가진 ‘현재성’(ing)의 의미도 포함한다. 즉 스토리텔링은 과거가 아닌 현재 중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면접 담화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대답을 한다는 것은 면접자와 면접관의 상호작용 아래, 자신의 경험을 현재에 필요한 것으로, 목적에 맞게 재구조화 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대답 방법은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담화의 형태로 이야기를 구조에 맞추어 표현하는 것이다.

6) 류훈(2010 : 9)에서는 사회적 성공을 성취하는 사람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스토리를 발견하고 창조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기술한다. 이러한 기술에서 스토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7) 고창수(2009b : 93)에서는 스토리텔링이란 말은 결국 스토리콘텐츠를 위한 문화기술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스토리텔링은 표현과 이해라는 국어교육의 패러다임 내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한 것이다. 이는 김재춘·배지현(2009 : 62), 신동일·김나희·강석주(2008), 김근호(2008) 등에서 논의한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가치, 혹은 의사소통능력 향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이러한 가치를 잘 나타내 준다. 김탁환(2004), 신선희(2006), 강명혜(2007), 류수열(2008), 신경숙·김지혜(2008), 이영태(2009) 등에서는 고전문학을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새롭게 접근하여 보고자 하는 논문들이다. 즉 원소스 멀티유즈(OSMU one source multi use)로 일컬어지는 문화 콘텐츠의 장르적 변용의 방법과 효용성—심청 이야기가 동화책, 애니메이션, 발레, 창극 등으로의 변용되는 것—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현대 사회에서의 고전문학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때 심청 이야기가 다양한 매체로 실현될 때 공통적인 ‘무엇’을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김광옥, 2008).

이들 논문에서는 스토리텔링을 Bruner가 제시한 ‘내러티브 사고’와 관련해서 기술한다. 맥락 의존적인 ‘내러티브 사고’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이러한 ‘내러티브 사고’는 문장 수준 이상의 담화 형태로, 사회적 가치와 문화가 내재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⁸⁾ 그러므로 이러한 사고는 특정 어휘와 표현이 아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고, 말하게 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교재 구성 방법을 제안하면서 한국 문화의 맥락과 구체적인 상황을 관련지어 한국어교육을 논의한 김영주(2008, 2009), 박숙자(2010), 육상호·박성수(2010) 등의 논문이 이를 잘 나타낸다. 이외에

8) 이것은 그동안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된 ‘합리적 지식’ 즉 패러다임의 사고와는 다른 것이다. 김근호(2008 : 235)에서는 이를 서사적 사고로 번역하고 ‘언어란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지식과 실재를 구성하고 창조하는 것’이라는 Bruner의 말을 인용하면서 서사 표현 교육의 가능성과 관련짓는다. 면접에서의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대답 방법은 이러한 서사 교육과의 연계성도 획득할 수 있다.

도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에 대한 논의(고창수, 2009a), TV 드라마와 만화에서 원천 콘텐츠 ‘메밀꽃 필 무렵’이 스토리텔링 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논의(이수현, 2008), ‘별교’라는 장소와 소설 ‘태백산맥’과 관련지은 스토리텔링 과정과 방법(정경운, 2006) 등의 논문 역시 이러한 가치를 잘 나타낸다. 특히 김근호(2008), 박종훈(2007)에서는 — 비록 짧은 언급에 그치고 있지만 — 스토리텔링이 국어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접근 가능한 것임을 시사한다. 김근호(2008 : 253)에서의 자기소개에서 자신의 일대기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방식과 박종훈(2007 : 108)에서의 설명 화법에서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환언 텍스트 방법에 대한 논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은 스토리텔링이 국어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혹은 활용 가치가 높은 기법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여러 논저의 내용을 감안할 때 면접 담화에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대답 방법은 국어교육의 여러 분야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면접에서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대답 방법은 표현과 이해라는 국어교육의 틀에서 논의 가능한 것으로 단순한 기계적인 기법 제시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면접에서 대답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의 구성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동안 화법 교육에 대한 활동만이 있고 내용이 없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Ⅲ. 면접에서의 좋은 대답의 조건

면접에서의 좋은 대답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서 스토리텔링 기법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좋은 대답에 대해 논의하기 전 면접의 개념을 정의하기로 한다.

면접이란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면담(인터뷰)의 하위 유형’이다. 이러한 정의를 ‘면담의 하위 유형으로 특정한 개인 혹은 집단과 직접 접촉하여 교섭하는 것으로 조사나 진단·시험·취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담화 유형’(노은희, 2007), 혹은 ‘면담 중 선발과 평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전은주, 2008) 등으로 정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에서부터 면접 담화에서 대답이 지니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식적인 말하기라는 점이다. 나은영(2002 : 65)에서는 똑같은 응시자라 하더라도 사투리를 사용했을 때보다 표준어를 사용했을 때 더 (32~77% 정도) 좋은 직업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면접에서 대답은 공식적 상황에 맞는 화법을 구사해야 한다.

둘째, 면접 담화에서 대답이란 자극(질문)에 대한 반응(대답)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면접에서의 대답이란 면접관의 일정한 의도 아래 부호화(encoding)된 질문이라는 행위에 대한 이해(decoding) 과정과 면접이라는 상황에 맞게 다시 부호화하는 과정이다(Mishler, 1991, 김현장, 2009 참고). 이러한 점은 Jef Verschueren(2003 : 262-269)에서 제시하는 다음 (1)과 같은 예와 그 설명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

(면접관) : 왜 바로 여기에 취업하려 합니까?

ㄱ. (면접자) : 전 이미 50군데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3번째 면접입니다.

저는 단지 직장이 필요할 뿐입니다.

ㄴ. 저는 일할 수 있는 더 나은 자리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Jef Verschueren(2003 : 262-269)에서는 예문(1)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위의 질문과 대답은 모두 구조와 내용면에서는 정확하다. 그러나 이들 대답이 면접관이 이들이 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올바로 해석한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 취업 면접에서 발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는 발화에 관여하는 참여자와 발화가 행해지는 상황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용론의 입장에서 면접 담화에서의 대답의 의미 생성 원리를

살펴보면 면접에서 대답은 부호화된 질문의 해석 및 이러한 해석에 적절한 부호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면접에서의 대답이란 평가가 전제된 것이다. 그러므로 면접 담화에서의 대답이란 계량화, 수치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나은영(2002 : 6652)에서 면접에서의 대답 행위를 ‘도구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취업 면접에서 자신이 그 회사의 적임자라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하며, 질문의 형태나 질문 내용과 관계없이 ‘항상 긍정적으로 자기가 이 회사에 최적’이라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기술하도록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박성희, 2003 : 85-88 참고).

지금까지 면접의 개념과 면접 담화에서 대답이 갖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런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의도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면접관의 평가 방법을 인지하고, 공식적 화법에 맞게 대답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중 공식적 상황에 적절한 화법은 면접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면접관의 의도 해석 및 평가를 염두에 둔 대답 방법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이를 위해 먼저 면접관들이 면접에서 대답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면접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박성희(2003 : 83-84), Tom Washington(2004 : 23) 등에서는 면접관들이 면접자의 대답을 분석하는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 정리하여 아래 예문(2)의 굵은 글씨 부분으로 제시한다.

(2)

- 면접관은 동일한 종류의 정보를 얻어도 해석과 평가는 다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정보나 감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되, 구체적으로, 솔직하며, 상투적이지 않은 자세로, 일관성 있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남과 구별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면접관이 단답형의 질문을 던져도 면접자 자신의 능력과 장점이 드러나도록 길게 대답하여 면접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면접자 자신이 계획 설정 능력과 조절 능력이 있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 면접관은 면접자들의 부정적 면을 평가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므로

어떤 인물을 나쁘게 평가하거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⁵⁾

- **면접관은 ‘좋은 사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 그러므로 조직적인 면, 의사소통 기술, 탄력적인 사고, 신뢰, 리더십, 협력적, 책임감이 있다는 것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한 그 직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를 가진 사람임을 기술하여야 한다.
- **면접관은 집중할 수 있는 답을 원한다.** 그러므로 면접자는 자신에게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에너지가 넘침을 보여주거나, 약속을 잘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모습과 함께 미래의 모습을 보여 줄 때 더 좋은 대답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억하기 쉽고, 감동을 주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설득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

(2)에서 가는 글씨 부분은 굵은 글씨로 제시한 면접관의 태도에서 유추해 본 대답 방법이다. 이처럼 면접에서 대답은 동일한 내용이라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면접관들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⁶⁾

그러므로 보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면접관이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는 대답 기법이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은 상대방과 감정적 공감을 이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고창수(2009a)에서는 인간은 ‘호모 나란스’(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야기꾼이

5) 박성희(2003 : 85-88)에서는 면접자들이 금해야 할 표현으로 ‘거짓말, 면접에 관심이 부족한 듯한 태도, 무례한 태도, 진지함 부족, 분명치 않은 설명, 단지 월급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 진취성 부족, 우유부단함, 참을성 없고 강한 편견, 자신을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 직업 계획의 부족, 낮은 도덕기준, 높은 자기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면접에서 대답할 때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6) ‘이런 점에서 큰소리로 대답하라’, ‘눈을 맞추어라’ 등등에 대한 청자(면접관)의 입장이거나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말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이므로 스토리텔링은 설득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기법이라고 표현한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 삼국사기와 함께 삼국 유사가 존재하는 것, 중국인들의 고사성어(故事成語)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논저에서 ‘진실과 사실만으로는 마음을 전달할 수 없을 때’, ‘이야기를 좀 더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떤 논리도 설득도 통하지 않을 때’ 스토리텔링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활용한 대답은 면접관의 흥미를 끌고, 다른 지원자와 구별되는 면접자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⁷⁾

이제 다음 장에서는 스토리텔링의 구성 방법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이는 마치 심정전의 내용(원소스)을 매체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는 원리와 동일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지원자의 고유한 경험을 면접 상황(면접의 목적, 면접관의 질문 의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즉 면접 담화에서 스토리텔링의 구성 방법에 맞게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 및 스토리텔링의 현재성과 상호작용을 위한 사건의 재해석과 재구조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⁸⁾ 그리고 이에 기초한 교육 내용 구성을 해야 한다.

7) 물론 면접에서의 모든 질문에 스토리텔링으로 대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위인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는가? 그 이유는?”, “현재 면접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질문은 스토리로 만들어서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면접 담화에서 대답 방법에 대한 논의는 여러 방법에서 접근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답 방법에 대한 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면접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답 방법의 하나라는 전제 아래 이 논문을 진행한다.

8) 류훈(2010 : 9)에서 언급하듯이 ‘누구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스토리를 스토리로서 성립시킬 줄 아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토리는 발견되기 전까지 스토리가 아니다. 따라서 핵심은 발견이고 발견된 ‘스토리’를 어떻게 수신자에게 ‘텔링’하는가이므로 국어교육에서 표현과 이해라는 패러다임과 일치한다.

IV. 면접에서 스토리텔링 구성 방법

이제 면접 담화에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면접 담화에서는 특정한 정보나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 재창조하는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Information Storytelling)을 주로 활용한다.

김탁환(2004 : 11)에서는 이를 ‘김홍도 전시회’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⁹⁾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여 전시회를 하는 것은 단원 김홍도의 예술 세계와 삶, 그와 교류한 문인들의 초상화나 글, 김홍도가 등장했던 드라마나 영화의 스틸 사진 등을 모아서, 이를 김홍도의 예술적 특징이나 삶의 단계에 따라 이야기를 만들고, 이 이야기에 따라서 새롭게 자료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런 전시회는 딱딱한 그림들만 붙여두는 것보다 관객들에게 훨씬 많은 지식과 감동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면 단순한 사실로 말할 때보다(즉 그림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지식과 감동을 줄 수 있다. 이 점에서 면접 담화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면접에서 그저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연대기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 일정한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면접자의 특정한 이야기를 만들어 그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경험 등을 기록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내용을 쓰는 방법을 소재 선택, 내용 구성 요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내용 구성에 필요한 소재 선택에 대해 생각해보자.

Stephen Denning(2006)에서는 스토리텔링 방법을 활용하여 ‘행동 촉구

9) 이는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의 하위 유형인 ‘뮤지엄 스토리텔링’에 해당한다. ‘뮤지엄스 스토리텔링—유물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시하라’라는 논문 제목이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가치를 잘 나타낸다. 또 다른 스토리텔링의 유형으로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Entertainment Storytelling)이 있다. 이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토리텔링으로 디지털 영화, 디지털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디지털 방송 등이 이 영역에 속한다(김탁환, 2004 : 10).

하기, 자신의 정체성 전달하기, 가치관 전달하기, 회사의 정체성 전달하기 (브랜드 구축하기), 협동 촉진하기, 유언비어 잠재우기, 지식 공유하기, 사람들을 미래로 이끌기'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8가지 내러티브 패턴'으로 나눈다.

이들 중에서 면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패턴은 '면접자의 정체성 전달하기'나 '면접자의 가치관 전달하기'라고 여겨지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먼저 면접자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즉 정체성을 나타내는 스토리텔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개 이러한 것은 '자신의 성품이나 장점에 대해 소개해보라'는 질문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대답 방법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3)

고등학교 시절이다. 아버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고생하던 때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인테리어 설계 일을 하시는데 IMF로 일이 끊긴 후에 우리 가족은 먹고 살 일이 막막했었다. 집을 헐값에 팔고 전세로 살다 다시 월세 집으로 옮겼다.

월세로 옮긴 때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학교는 잘 다녔지만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꾸지 못하고 용돈도 당연히 없었다.

차비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룻길은 걸어 다녔다. 혜화동에서 수유동까지 걸어보니 한 시간 반 남짓이 걸렸다. 그런데 문득 하룻길 주변이 전부 주택가인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해서 용돈을 벌어보자고 생각했다.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전단지 붙이는 일을 시작하였다. 학교에서 집까지 꽤 먼 곳이니 치킨집이나 중국집 등 다섯 곳 정도를 돌아 전단지를 받아왔다. 꽤 많은 양이지만 주택가가 많아 한 번에 여러 상점 전단지 서너 개씩 붙이니 일은 비교적 수월했다.

그렇게 일을 한두 달씩 해보니 생각보다 수입이 좋았다. 20만원을 벌게 되어 차비 3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학원 등록비로 사용했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아무리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으며, 그것을 이겨

10) (3), (4)번 예에서 청자 대우 표현은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 각주 4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이 먼 대면 상황에서의 대답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자기 소개서로도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낼 수만 있다면 상황이 주어지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¹¹⁾

(3)과 같이 스토리텔링 방법을 활용한 대답을 통해 ‘아 지원자는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면이 있구나’,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는군,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오면 이렇게 행동할거야’와 같은 것을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오래 기억하게 하므로 효율적이다.

이제 가치관을 나타내는 스토리텔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스토리텔링에서는 면접관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며,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가치관을 담은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쓰는 것이 좋다. Stephen Denning (2006)에서는 가치관을 나타내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 신빙성 있는 인물과 상황을 사용하는데 스토리는 반드시 화자의 행동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떠오르는 스토리가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가족은 부유하지 못했기에 돈을 여유롭게 쓴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500달러가 필요했다. 부모님께는 그런 돈을 빌릴 수 없어서 나는 삼촌 벤에게 가서 나의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삼촌은 내게 500달러를 빌려주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 돈을 몽땅 날리고 말았다. 사업은 날아갔고 벤 삼촌에게 빌린 500달러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하지만 나는 삼촌에게 다시 연락을 하지 않고 그대로 관계를 끝냈다. 단 한 푼도 갚지 않고 약 6개월이 흐른 후에 삼촌이 내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너를 믿은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니지. 네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 네가 돈을 벌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도 있잖나? 이렇게 관계를 끝내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야.’ 그 뒤로 나는 평생 돈을 사용하는 방법과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잊을 수가 없다(Stephen Denning 2006 : 162).

11) 이 예는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에 대한 강의를 들은 학생이 이를 활용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것을 필자가 가감 첨삭한 것이다.

(4)와 같은 가치관을 나타내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자신을 믿어준 사람에게는 감사함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군’, ‘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군’, ‘맞는 말이야’라는 반응을 유발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다.

(3), (4)처럼 지원자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스토리텔링 방법을 사용하여 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보여주기 위한 소재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를 예문(5)로 제시한다.¹²⁾

(5)

ㄱ. 정체성을 전달하기 위한 소재

- 어릴 때 가장 좋아한 장소와 그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
- 어릴 때 역경이나 장애를 극복한 방법
- 자신이 존경하거나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과의 사건
- 어릴 때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중대한 일
-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생각되는 시점

ㄴ.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한 소재

- 정직, 친절, 혁신, 우정, 성취, 신뢰 등이 중요한 이유
- 두 개의 가치가 부딪혔을 때의 선택 방법
- 가르친 선생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 나를 배신한 사람
- 출세하기 위한 조건

앞에 제시한 예문(3)에서는 (5-ㄱ)에서 제시하는 ‘어릴 때 역경이나 장애를 극복한 방법’을, (4)에서는 (5-ㄴ)에서 제시한 ‘두 개의 가치가 부딪혔을 때의 선택 방법’ 같은 소재 선택을 했다. 소재 선택 후에는 이들을 이야기로 엮어내야 한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구성해야 효과적이다.¹³⁾

신동일 · 김나희 · 강석주(2008)에서는 Stein과 Glenn이 제시한 이야기문

12) 주로 Stephen Denning(2006)을 참고로 하였음.

13) 그러므로 스토리텔링은 ‘구조에 따른’ 말하기나 글쓰는 방법에도 도움을 준다.

법과 관련짓고 있다. Stein과 Glenn이 제시한 이야기 문법 구성 요소는 배경(등장인물, 장소,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상황 정보), 도입 사건(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사건이 도입, 등장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대한 등장인물의 인식), 내적 반응(등장인물의 감정, 목표, 열정, 의도 혹은 일련의 연속적인 줄거리를 이끄는 생각), 시도(상황을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위), 직접적 결과(시도에 대한 결과로서 목표에 대한 등장인물의 행위의 달성여부), 반응(직접적 결과에 대한 등장인물의 감정, 생각, 행위)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육상호·박성수(2010 : 77)에서는 갈등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조정래(2010)에서는 스토리텔링의 육하원칙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기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매체, 사용 목적에 적절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면접 상황을 고려하면 면접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는 것이 좋다.

먼저 질문의 의도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예문 (3)에서의 ‘집안이 어렵게 된 사실’과 예문 (4)에서의 ‘사업 자금을 빌린 사실’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면접자가 직면했던 어려움을 기술해야 한다. 예문 (3)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예문 (4)에서의 ‘실패를 하게 된 상황’이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면접자가 취한 행동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예문 (3)에서의 ‘전단지 돌리는 것’, 예문 (4)에서의 ‘삼촌과의 관계를 끊음’과 같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숫자와 같은 양적인 표현 등을 사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행동의 결과를 되도록 긍정적인 입장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예문 (3)에서의 ‘용돈 벌고 학원까지 다닌 것’과 예문 (4)에서의 ‘삼촌의 배려로 조금씩 벌어 갚기로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면접자가 경험한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내용을

제시하면 좋다. 예문 (3)에서의 ‘인내심과 역경 극복 의지가 생긴 것’, 예문 (4)에서의 ‘신뢰해준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면접 상황을 고려한 이러한 구조에 따라 스토리를 쓰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 처한 어려움을 제시하고 그것을 극복한 경험이나 능력을 보여 ‘변화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하나의 스토리텔링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두 개 이상이 있으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셋째, 스토리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극적 사건으로(고창수, 2009a : 465) 혹은 상호적이고 동적인 것으로 재창조해야 한다.

넷째, 단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예정·김성룡(2005)에서는 스토리텔링이란 사건을 가공하여 전달하는 행위이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고려하여 중요한 사건과 불필요한 사건들은 분류해야 한다. 면접에서의 대답에서는 이러한 구성 방법에 따라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대답할 경우 소재 선택, 구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렇게 구성한 내용들을 자기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면접 답화에서의 대답은 미리 예측하여 준비할 수 있고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면접자는 스스로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평가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자기 평가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5)로 제시한다.

(5)

- 스토리가 나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나타내는가?

- 스토리에 나의 역할이나 능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 스토리에 나만이 지닌 독특한 점이 반영되어 있는가?
- 스토리가 현재 내가 면접에 임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는가?
- 과거의 스토리가 현재의 나 혹은 면접에서 요구하는 경험이나 능력과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는가?
- 스토리에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이겨낸 내용이 존재하는가?
- 스토리에 구체적으로 양적(숫자)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스토리에 남을 원망하는 등의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가?
- 스토리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가?

지금까지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대답을 하기 위한 소재 선택 방법 및 이야기 구성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자기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야기로 말한다는 것은 각 개인이 경험한 삶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화법 교과서를 비롯한 화법 관련 논저에서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면접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 방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면접 담화에서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대답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담화 형태로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청자(면접관)가 흥미를 유발하고 오래 기억하며, 면접 상황에 맞추어 구조에 맞추어 대답을 하게 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V. 맺음말

면접 담화는 평가를 목적으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행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념에서 질문하는 법과 대답하는 방법을 면접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입학이나 취업 등 학생들의 필요를 고려할 때 대답 방법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취업 면접 상황에서의 대답 방법을 스토리텔링을 중심

으로 논의하였다. 면접에서 대답은 면접관의 평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면접관들이 열심히 듣고, 오래 기억하면서 지원자를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대답 기법이나 전략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기법 중에서 스토리텔링을 제시하였다.

스토리텔링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고전문학에서는 원소스 멀티유즈로서 현대적 가치를 모색하게 하며, 한국어 교육에서는 맥락 중심의 교육을, 글쓰기나 대화 등에서는 설득의 기법으로, 현대 문학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스토리텔링화 되는 방법이나 과정 등과 관련지으며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담화 형태로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의사소통능력을 나타내므로 국어교육의 패러다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면접 담화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대답 방법은 담화 형태로 문맥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성 요소에 맞는 이야기 작성 방법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단순한 활동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대답을 위한 소재 선택 방법, 구성 방법, 그리고 평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본 논문은 2011. 6. 28. 투고되었으며, 2011. 7. 1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7.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명혜(2007), “고전시가와 스토리텔링”, 『온지논총』 제16집, 온지학회, pp.127~151.
- 고창수(2009a), “스토리텔링 기법을 응용한 설득 글쓰기 전략”, 『우리어문연구』 제33집, 우리어문학회, pp.453~468.
- 고창수(2009b), “스토리텔링 산업에 요구되는 문화기술들”, 『한성어문학』 제28집,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pp.87~105.
- 김광욱(2008), “스토리텔링의 개념”, 『겨레어문학』 제41집, 겨레어문학회, pp.249~276.
- 김근호(2008), “스토리텔링의 서사 문화와 서사표현교육론—TV 방송 매체의 일상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33집, 국어교육학회, pp.229~266.
- 김영근·안성혜(2006), “디지털 만화의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2집, 한국콘텐츠학회, pp.35~44.
- 김영주(2008), “전래동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다문화 및 재외동포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제80집, 한국국어교육학회, pp.97~124.
- 김영주(2009),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국어 문어 교재 개발 : 균형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새국어교육』 제83집, 한국국어교육학회, pp.99~132.
- 김재춘·배지현(2009), “의미 생성 활동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함의”, 『초등교육연구』 제22집, 한국초등교육학회, pp.61~82.
- 김탁환(2004), “고소설과 이야기문학의 미래”, 『고소설연구』 제17집, 한국고소설학회, pp.5~28.
- 김현강(2009), 『매체인터뷰의 담화전략』, 한국문화사.
- 김현영(2004), “스토리텔링의 후속활동이 초등학생들의 영어능력향상에 미치는 영향”,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제9집, 글로벌영어교육학회, pp.99~124.
- 나은영(2002),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한나래.
- 노은희(2007), “국어과 선택 과목 화법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논의”, 『국어교육학연구』 제28집, 국어교육학회, pp.301~325.
- 류수열(2008), “시조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가능성—애정 시조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제28집, 한국시조학회, pp.9~28.
- 류현주(2005), “디지털 스토리텔링 시대의 내러티브”,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4집, 현대문학이론학회, pp.121~135.
- 류 훈(2010), “영화 시나리오의 스토리텔링—장편 상업영화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3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pp.7~40.
- 박성희(2003), 『미디어인터뷰』, 나남출판.

- 박숙자(2010),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문학제재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새국어교육』 제86집, 한국국어교육학회, pp.105~123.
- 박종훈(2007), 『국어 표현 교육의 문제들』, 월인.
- 신경숙·김지혜(2008), “고전소스의 스토리텔링 기법 연구-드라마 <향단전> 분석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제27집,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pp.211~234.
- 신동일·김나희·강석주(2008), “한국어와 영어 스토리텔링 구사능력의 비교 탐색연구”, 『이중언어학』 제38집, 이중언어학회, pp.207~234.
- 신선희(2006), “디지털스토리텔링과 고전문학”, 『한국고전연구』 제1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pp.279~302.
- 육상호·박성수(2010), “스토리텔링을 통한 한국어 학습 콘텐츠 개발 연구-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42집, 이중언어학회, pp.73~102.
- 이수현(2008), “<메밀꽃 필 무렵>의 스토리텔링 양상 연구-HDTV 문학관과 서사 만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35집, 한국문학연구학회, pp.271~302.
- 이영태(2009), “스토리텔링을 통한 속요의 교육방안 모색”, 『우리어문연구』 제35집, 우리어문학회, pp.85~109.
- 이준희(2003),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구조적 디자인”, 『디자인학연구』 제16집, 한국디자인학회, pp.375~384.
- 전은주(2008), “학교 화법 교육에서의 면담 교수-학습 내용에 관한 재고”, 『국어교육』 제127집, 한국어교육학회, pp.81~109.
- 정경운(2006), “서사 공간의 문화 기호 읽기와 스토리텔링 전략1-『태백산맥』의 “별교”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pp.273~291.
- 조정래(2010), 『스토리텔링 육하원칙』, 지식의날개.
- 주경희·이혜용(2010), 『취업 면접 화법』, 박이정.
- 최예정·김성룡(2005), 『스토리텔링과 네러티브』, 글누림.
- 최혜실(2009),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 한현숙·전은주(2008), “면접화법의 교수-학습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국어교육』 제79집, 한국국어교육학회, pp.419~445.
- Bob Adams(2001), *Job Interview*, Adams.
- Elliot G. Mishler(1991), *Research Interviewing*, Harvard.
- Jef Verschueren(1998), *Understanding pragmatics*, 화용론의 이해, 김영순 외 옮김, 동인.
- Laura Davis(2002), *I Thought We'd Never Speak Again*, Harper Collins.

Robert A. Shearer(2005), *Interviewing*, Pearson Education, Inc.

Sam Horn(1996), *Tongue Fu*, ST. Martin's Griffin, New York.

Stephen Denning(2006), *The Leader's Guide to Storytelling*, 스토리텔링으로 성공하라, 안진환 옮김, 을유문화사.

Tom Washington(2004), *Interview Power Selling Yourself Face To Face*, Mount Vernon Press.

<초록>

면접 담화에서의 대답 방법에 대한 연구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주경희

면접 담화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행위이다. 그러므로 국어교육에서의 교육내용 구성은 질문하는 법과 대답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취업 면접에서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여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스토리텔링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전문학에서는 원소스 멀티유즈로서 현대적 가치를 모색하게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맥락 중심의 교육 내용 구성을 하는 방법론으로 제시할 수 있다. 글쓰기나 대화 등에서는 설득의 기법으로, 현대 문학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의 내용 구성 방법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담화 형태로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의사소통능력을 나타내므로 국어교육의 패러다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으로 대답을 하면 기억하기 쉽고, 감동을 주며, 설득적이므로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대답보다는 효율적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위한 소재 선택 방법, 구성 방법 그리고 평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어】 면접, 대답하는 방법, 스토리텔링의 구성 방법, 스토리텔링의 소재 선택 방법, 스토리텔링의 평가 방법

<Abstract>

A Study of Effective Interview Using Storytelling Approach for Interviewee

Chu, Kyung-hee

An Interview is a discourse consisting of questions and answers, therefore the most critical contents of an interview are how to present questions and how to answer them. From the learner's perspective, they have greater desires to know different methods of answering questions. For that reason, this paper focuses on the answering method using storytelling approach during a job interview.

Storytelling has been used in multi field. We discuss that by storytelling, we try to find modern value as one source multi use in classical literature, the context oriented education in Korean education and the strategy of persuasion in writing, conversation. Thus storytelling can be discussed in paradigm of Korean education as it shows communicative competency related to social situation in the form of discourse. It is more effective to use storytelling approach because it is easier to remember and results in stronger impression and persuasion when compared to an answer providing facts plainly. This paper presents how to choose contents, how to organize, and how to evaluate storytelling.

【Key words】 interview, answering method using storytelling, how to choose contents, how to organize, and how to evaluate storytelling